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801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3월 26일 (음력 2월 19일) 수요일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3000

교과부 지방교육예산 10% 절감 강행

광주·전남 교육 부실 심화

교원단체 "졸속 행정"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10%를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소요 경비로 충당하기로 해 가뜩이나 열악한 광주·전남지역 교육환경여건이 더욱 부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청과 교원단체는 교과부가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역의 교육예산에서 부담토록 하는 발상 자체가 상명하달식 구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예산 삭감으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사업이나 경상비적 성격의 학교운영비 지원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 양극화도 심해지게 됐다.

더구나 교과부는 지난 24일 각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추진 지침을 내려보낸 데 이어 지침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시행 계획을 불과 4일 뒤인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밀어붙이기식 졸속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이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10% 절약방안을 시·도교육청별로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에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전체 예산 1조1천926억원 중 10%인 1천200억원 가량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은 줄일 수 없는 현실을 감안, 전체 예산의 30%정도인 사업성 예산 3천500억~4천억원의 10%인 350억~400억원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중이다.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줄 학교시설 개선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남도교육청도 전체 예산 2조1천977억원 중 경직성 경비 1조9천902억원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2천74억원의 10%인 2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광주·전남교육청 관계자들은 "교육예산을 늘려주지는 못할 망정 새정부가 갖가지 교육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늘어 놓고 부담은 일선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더구나 예산절감 실적을 보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예산 삭감에 따라 교육의 지역간 양극화의 심화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의 경우 교육청에 대한 법정 전입금 규모가 커 예산 삭감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광주·전남은 지자체의 전입금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올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은 1천744억원(지방교육예산의 14.6%)인데 비해, 서울은 시교육청 예산 6조1천573억원의 36.6%인 2조2천541억원에 달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난감할 따름이다.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일 수 있지만 당장 개별 사업 예산의 10%를 줄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 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학교급식 깨끗하게 먹거리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리기구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 광주시 남구보건소 직원이 25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조봉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손 세균 검사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4.9총선 광주·전남 화제지역 판세 (단위:%)

광주 남구	광주 광산구 갑	전남 목포	전남 무안·신안
48.9 : 23.7	37.3 : 26.5	27.5 : 26.9	26.3 : 18.7
강운태 지병문	김동철 송병태	박지원 정영식	황호순 김홍업

'F1 대회' 정부 지원 절실

국가 규모 경제 효과

전남도가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건설(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오는 2010년 개최하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하 F1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16면〉

지난 23일 막을 내린 2008 F1말레이시아 그랑프리 대회는 외국인 관광객 10여만을 포함, 23만여명의 관중을 끌어 모으고, 매년 1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국가적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가 개최권(2010년~2017년)을 확보한 2010년 F1대회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데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F1대회는 유치 과정에서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최권료 전액과 경주장 건설비(8천만 달러)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SOC 건설에도 자금을 조달하는 등 국가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했다.

말레이시아가 정부 주도로 F1대회를 추진한 것은 이 대회가 국가 신인도와 지명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적인 마케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최 10년째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지원 규모는 최소화되고 현재는 자동차, 광고회사를 비롯한 많은 민간기업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전남도가 추진 중인 2010년 F1대회는 최근 'F1국제자동차대회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각종 사업비 충당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현재 F1경주장 건설비 조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진행중에 있어 정부와 관련 자동차 업계의 지원과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호텔과 카지노 등 부대시설 확충도 F1대회 성공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축제 중 하나인 F1대회는 전남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관광 인프라로서의 가치가 높은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그랑프리 운영법인인 코리아 오토밸리 오퍼레이션(KAVO)이 총 3천160억원을 들여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건설 중인 F1경주장(1천853㎞)은 현재 연약지반 처리 공사가 한창이며, 1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화갑 광주 북 갑 출마

'무소속 벨트' 현실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광주 북구갑 무소속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도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무소속 벨트'가 현실화 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통합민주당을 탈당하고 광주 북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전날(24일)의 발언을 번복한 것이다.

한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로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20개의 선거구 가운데 35%인 7곳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와 각축전을 벌이게 됐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유인학 전 의원은 24일 "당당하게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며 장흥·영암·강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겠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법무법인 遼經에서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합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요학력 및 경력

· 광주서중·일고(47회) 서울법대(73학번)
· 사법시험 제19회, 사법연수원 제9기
· 미국 뉴욕주 코넬 로스쿨 LL.M
· 순천지청장, 광주 특수부장, 광주 형사1부장
· 서울지검 외사부장,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
· 서울서부지청장, 성남지청장, 남부차장검사
· 전주검사장, 대전검사장, 서울북부검사장
· 대검할형 공안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 개업소연 : 2008년 4월 2일(수) 17:00 부터

변호사 강 충 식 올림

■ 사무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5층 르네상스호텔 옆 녹색빌딩(우편135-914)
■ 전화 : 02-527-0033(대), 527-0042(직) ■ FAX : 02-527-0040

무소속 약진…민주 절대강세 '흔들'

총선 D-14 광주·전남 4곳 접전 선거판세 큰 영향

광주일보·KBC·갤럽 **여론조사**

4·9총선을 보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20개 선거구 가운데 광주 남구와 전남 목포를 비롯 4곳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26일 마무리되는 후보등록 과정에서 통합민주당의 공천에 탈락한 거물급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를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무소속 강세 현상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광주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광주·전남지역 선거구 가운데 격전이 예상되는 4곳을 전화로 여론조사한 결과, 광주 남구에서는 무소속 후보인 강운태 전 내무부장관이 48.9%의 지지율을 기록, 민주당 후보인 지병문 의원(23.7%)을 25.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7.5%의 지지율을 보여, 26.9%를 기록한 민주당 정영식 전 행자부 차관에 불과 0.6%포인트 앞섰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상열 의원도 15.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광주 광산구 갑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김동철 의원이 37.3%의 지지율로 선두에 나선 가운데 무소속인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 역시 26.5%의 지지율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무안·신안에선 민주당 후보인 황호순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6.3%를 기록, 18.7%를 보인 김 의원보다 7.6%포인트 앞서 막판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또 다른 무소속 후보인 이윤석 전 전남도의장도 14.0%를 보이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또 4개 선거구 모두에서 응답자의 50~60%가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8% 수준에 그쳐, '민주당 절대 우세'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층도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일 하루 동안 선거구별로 504~510명씩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4.4% 포인트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